



제 2019-155호

중국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5주년 사건 심리현황 발표

북경사무소

### ■ 현황

- 중국의 지식재산권법원 3곳 중 하나인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지난 5년간 심리한 사건현황을 공표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난 2014년 11월 6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중급법원에 해당함. 베이징 이외에 상하이와 광저우에도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어 있음. 참고로 중국의 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구분됨
-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저작권 사건의 1심은 기층인민법원 또는 동급인 인터넷법원에서 심리함. 현재 인터넷법원은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설립되어 있으며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할지역내의 사건에 대하여 집중관할권을 행사함.



따라서 지식재산권법원이 저작권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경우는 대개 소송가액이 크거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문제되거나, 기술성이 강한 사안이거나, 사안이 중대 복잡한 섭외사건인 경우에 한정됨

- 아래에서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발표한 사건현황 중 저작권 관련 사건현황만을 간추려 살펴봄

## ■ 주요 내용

- 지난 2014년 11월 6일부터 2019년 9월까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총 70,924건의 사건을 수리했으며, 매년 수리사건의 수는 평균 26% 증가함.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사건은 44,924건인데, 그중 상표사건이 87%, 전리(특허) 관련 사건이 13%를 차지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한 사건의 경우 약 80%가 1심 사건이며, 섭외사건의 비율이 높고, 기술과 관계된 난이도 높은 사건들이 많음
  - 사건유형으로 보면 행정사건이 70%, 민사사건이 30%임. 그 중 상표사건이 58%, 저작권 사건이 25%, 전리사건이 13%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특허경영 및 기술계약 등 사건이 4%를 차지하고 있음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수리한 섭외사건(홍콩, 마카오, 타이완 제외)은 14,945건으로, 전체 수리 사건의 약 21%를 차지하는 등 섭외사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섭외사건은 90개 국가 지역과 관련 있는데, 그 중 1/3이 미국과 관련된 사건이며, 독일과 일본 관련 사건은 1/1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국가와 관계된 사건의 비율은 15%임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한 저작권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은 9층요탑사건(九层妖塔案), 중국 첫 클라우드 서버의 저작권 침해사건(首例云服务器被诉侵权案), 음악분수사건(音乐喷泉案) 등이 있음
  - 상기 세 사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동향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동향을 참조하면 될 것임



## ■ 평가

-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이 저작권 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직접 1심을 담당하며,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의 경우 저작권 사건의 2심을 담당하는 등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법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한 문제는 온라인에서 해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세계 최초로 중국에 설립된 인터넷법원을 통한 저작권 소송이 중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법원을 이용하면 과거보다 손쉽게 단기에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터넷법원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필요함. 또한 인터넷법원과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영역과 관할대상에 대한 차이점 등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출처

- 인민망(人民网)
  - <http://bj.people.com.cn/n2/2019/1108/c82840-33518128.html>